

몇 년 전 영국 북부의 글래스고(Glasgow)에 위치한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곳 대학생들과 얘기하던 중, 공과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에 놀랐었던 경험이다. 지난 시절 5대양 6대주를 호령하며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라고 불리던 대영제국의 학생들이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연유는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발달 때문이었다. 울산의 현대조선, 거제도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등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비단 조선산업 뿐인가?

중전기 분야 세계적인 기업의 출현을 갈망하며



김철환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스마트 폰, 스마트 TV, 디스플레이 장치, 가전산업, 메모리 장치 등의 전자산업, 통신산업, 건설산업, 자동차 산업 등 공과대학 졸업생들을 배출한 대다수의 학과 전공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유독 세계적인 기업을 탄생시키지 못한 분야가 있으니, 그것은 전기공학 분야이다. 필자는 지난 20여 년간의 전기공학과 대학입학성적이 위에 언급한 세계선도 산업을 탄생시킨 타 학과 학생들의 입학성적 보다 저조하였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유독 중전기산업(전기 분야를 포함)에서만 세계 선도기업을 배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데, 구슬은 서 말인데, 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정책미비인가? 기업체의 투자 의지 부족인가? 전기공학과 교수들이 타 공과대학 학과 교수들에 비해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지 않은 까닭인가? 아니면, 다른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인가?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무척 중요한 존재이다.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며 양성된 고급인력이 취업할 일자리이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 가족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또한 각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함으로써 국부가 튼튼하게 자리매김 되는 것이다. 중전기 산업분야의 세계적인 기업들을 열거해 보면,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유럽의 ABB, 일본의 미쓰비씨, 도시바 등이 있다. 특히 중전기 산업의 경우, 예를 들어 보호계전기 등은 유사시 군수산업으로도 수월하게 적용이 가능한 분야이다. 그러므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중전기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 출현은 무척 중요하고 긴요하다.

최근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신재생 에너지 등의 유망 산업에 기인하여 대학생들의 중전기 산업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일례로 필자가 재직하는 대학의 전자전기공학부 1개 학년의 정원이 250명인데, 한 학기에 전력계통 공학 200여 명, 전력전자 공학 150여 명, 전기기기 공학 150여 명이 전기공학과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타 분야 전공 교수들이 본인 담당 강좌의 수강생 수가 줄었다고 푸념들이다. 이는 우리 대학교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 모든 대학교에 공통된 최근의 현주소이다.

대한민국은 G8 정상회의에서 스마트 그리드 선도국가로 지정되어, 제주도에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를 설치하여 이 분야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학생 및 모두의 관심이 뜨거울 이 때, 정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말고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이미 구슬은 서 말이므로 구슬들을 잘 펴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고안해 내기를 진심으로 당부 한다. 그리하여 머지않은 미래에 중전기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이 '우뚝' 대한민국에 출현한다면 우리의 미래 가치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KEA